

예장웨신 96회총선 총회장 성흥경 목사 당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는 9월 5일 ~ 6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소재 온누리찬양교회(담임 정대성 목사)에서 개회패 총회장 성흥경 목사(송석교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3선에 당선됐다.

5일 오후 4시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김춘택 목사(은천교회)가 기도를, 회계 허성인 목사가 사도행전 15:6~11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예루살렘 성총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총회와 노회' '지교회와 인준신학교를 위하여' 김학기 목사(경향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김춘택 목사
서기 장창운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 선출

(대한노회 노회장)가 나왔으며, 성흥경 총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이원석 목사(은광교회 원로) 집례로 2부 성찬예식에서 심순범 목사(동서노회 노회장)의 기도, 전승욱, 강형식 목사가 분병위원을, 김영중, 김주현 목사가 분찬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오후 5시20분 총회장 성흥경 목사 사회로, 하종우 목사(한서노회장)가 기도한 후 총대호명

과 개회선언에 이어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경향노회(노회장 김학기 목사)와 한남노회(노회장 정성택 목사)가 가입인준을 받았으며 박수로 환영했다.

임원선거에서 성흥경, 이이중, 이흥규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선정되어 투표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성흥경 목사(송석교회)가 96회기 총회장에 선출되면서 정회됐다.

다음날 6일 오전 9시 속회되어 선출된 임원은 이재갑(빛과소금교회), 김춘택(은천교회),이경찬 목사(서광교회)가 부총회장 후보로 지명되어 투표결과 이재갑 목사, 김춘택 목사가 당선됐다.

이어 서기 장창운(열린찬양교회), 부 정일량(향기로운교회), 회의록서기 박영남(춘천중앙교회), 부 조철준(큰빛교회), 회계 허성인(신성교회), 부 유운주(지구촌교회), 감사 지영철(동서울교회), 이 규(동산교회), 정규남 목사(주

복음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성암교회),등이 선출됐다.

신·구 임원교체에서 온누리찬양교회(정대성 목사) 여전도회의 회장분배가 있는 후 각부보고 중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정기환 목사)를 총회직영신학교로 인준 가결했다. 현재 총회직영신학교를 비롯해 목포신학교(학장 조광표 목사), 서울찬양신학연구원(학장 장창운 목사)등 지방신학교가 있다. 또한 이날 교세확장을 위한 전권위원회와 헌법 자구수정 위원회, 신학위원회 구성을 임원진에 위임했다. 게다가 제96회 총회는 여목제도가 공포, 시행되면서 여목총대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총회원들의 염원과 총정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웨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신앙고백을 정체성으로 삼고 한국교계의 몇 안 되는 모범적인 총회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교단의 사명을 다하고, 총회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손에 손을 뜨겁게 잡고 화합과 협력을 다짐하면서 화기애애한 자



총회장 성흥경 목사

리가 됐다.

한편 경중노회(노회장 이기식 목사)는 총회명부에서 삭제하고 잔류해 있는 노회원들을 새로운 노회 명칭으로 가입해 올 경우 반아드린다는 안에 가결했다. 이날 정성택 목사(한남노회장)기도로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답후 2:15절을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마쳤으며 헌법 정치 제17장 7조, 규칙 제5장 제23조에 의해 2011년 제96회 성총회가 성료 됐다.

■ 사설

K-Pop 한류문화 열풍을 한류선교 열풍으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잘 치러졌다.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대회,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나라로 지구상에 230여개 나라 중에서 여섯 번째 국가가 된 것이다. 이 반도막의 작은 나라, 전쟁을 치루고 잣더미에서 다시 일어서 6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 경제 10대 강국에다, 기독교 복음의 2대 강국이 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거기에다 한류열풍, K-pop 열풍이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 유럽, 미국까지 밀물처럼 번져가고 있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향해 우리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기위해선, 우리의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인종과 문화,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선교의 강국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교회가 중단 없이 성장성숙 하기위한 양대 기둥은 잘 모이는 교회 gathering church이면서, 잘 흩어지는 교회 scattering church가 되어야한다.

열심히 모여서 거둬내고 훈련받아 복음을 들고 흩어져 나아가 증인의 삶,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하신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데는 그런대로 성공했다. 몇 천 몇, 몇 만 명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가 준비하다. 그러나 교인의 수나 규모에 걸맞게 과연 얼마나 세계선교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한금의 대부분을 교회당 건물 짓고, 기도원 짓는 하드웨어에 쏟아 붓는다. 세계선교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인색할 정도이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세운 예루살렘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핏바에 의해,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도망치다시피 흩어져나간다. 초림에 법석을 뿌려놓은 못자리관에서, 5-6월에 넓은 논바닥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모는 모두 썩어버린다. 이것이 벼농사의 법칙이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땅 끝을 향해 뻗어가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사기使家인 누가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잘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강압적인 핏바를 동원해 서라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신다.

오늘, 여기here and now, 우리의 한류열풍이 세계를 향해서 몰아가고 있다. 이 한류문화의 열풍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류선교열풍으로 바꾸어, 이 여세를 몰아가야할 때이다. 하나님의 감동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 스스로 비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넓은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정당으로 가는 기독교 명칭은 반대’

한국교회연론회(대표 김승동)가 최근 기독교와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독교 정당 문제에 대해 찬·반 양측 의견을 듣고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독교 정당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 토론회를 개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기독교 정당을 찬성하는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김충립 박사(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가 나섰고, 반대 패널로 이만열 교수(전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나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론회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광훈 목사는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경제 발전 이면에는 그늘이 있고(자살율, 이혼율, 저 출산 등) 우리 국가가 점점 좌경화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이를 해소할 정당으로는 기독교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만열 교수는 “기독교 이념을 가진 정당은 필요하지만 기독교란 명칭을 넣는 정당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펼쳤다. 이 교

수는 “‘기독’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한자식 표현인 만큼 기독교당 창당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독교당이 실패 혹은 잘못을 범하거나, 기독교적 가치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세울 경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기독교가 사회선교를 위한 것으로는 ‘인권’ ‘환경’ ‘남북문제’ (분북격차) ‘핵’ ‘인종차별’ ‘낙태’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평인 위원은 “한국이 종교 간에 잘 공존해 왔는데, 기독교가 정치화되므로 나쁜 결과가 나올까 염려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립 박사는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이 신학적, 역사적, 현



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기독교 정당에 대하여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교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만열 교수는 “정교분리에 대한 것은 선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교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정교분리가 잘못된 것임을 정리해 준 것(이만열 교수)에 대해 감

사한다”면서 “개혁주의 신앙이나 로잔언약에서도 정치 참여가 문제될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송평인 위원은 “헌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기독교당이 되어도 소수당을 면기 어려울 텐데, 차라리 기독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티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축

제9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모범적인 총회, 섬김과 헌신으로 교단발전에 힘쓰자」

총회장
성흥경 목사
수원송석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부천은천교회

서기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부서기
정일량 목사
향기로운교회

회의록서기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부회의록서기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회 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유운주 목사
지구촌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감사
이규 목사
동산교회

감사
정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성총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총대 여러분께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 일동 감사드립니다.

웨신총회

총회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 (201호)
전화 : 02)835-2606-7 팩스 02)835-2608
서기 : 010-5678-9950 총무 : 010-8602-3009
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sec21ch@hanmail.net

세주부협 제6차 정기 총회 열어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대표 회장 이재원 목사, 이하 세주부협)는 지난 8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6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를 경기도 가평군 현리에 소재한 ‘현리치유센터’ (원장 김인순 목사)에서 가졌다.

2011년 제6차 총회를 갖는 자리에서 직급별 임명식에서 수석 상임회장 박영민 목사, 상임회장 곽태영 목사, 상임회장 박영복 목사, 서기 전진성 목사, 실무회장은 정성택 목사, 김부경 목사, 정 선 목사, 김장렬 목사를 이어 실무회장 및 감사단장은 박수영 목사를, 공동회장 윤순란 목사, 김인순 목사, 김기일 목사, 주영광 선교사, 김장영 선교사, 박달수 선교사, 이기학 목사, 김종표 목사 등을 각각 임명했다.



세주부협 수련회

이날 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사무총장의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회칙 수·개정 등을 다루었으며, 아울러 2012년도 년 중 국내외 부흥성회 일정과 부흥사연수교육

등도 논의됐다.

세주부협은 총재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의 후원과 회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이루어졌다. 한편 책사대회를 열어 1,2,3등에게 시상이 주어지고, 한 해 동안 열성을 가진 부흥사들과 함께 호반의 도시 춘천의 명승지를 돌아보는 관광을 했다.

길은 온 세계로!”라는 표어로 한 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초교파 부흥사 단체이다. 동협회의 회원 가입은 서류심사를 거친 후 부흥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동협회의는 2011,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상호 친목을 다지며 부흥사로서의 영성운동에 재충전하자는 뜻을 갖고 전국에서 참석한 부흥사들로 수련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2박3일간 총회와 수련회는 총재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의 후원과 회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이루어졌다. 한편 책사대회를 열어 1,2,3등에게 시상이 주어지고, 한 해 동안 열성을 가진 부흥사들과 함께 호반의 도시 춘천의 명승지를 돌아보는 관광을 했다.

편 성 부 장 곽 영 민 기 자 kdp0920@naver.com

역사의 교훈

노르웨이는 관용과 개방과 평화를 좋아하는 나라이다. 국왕과 총리로 경호원 없이 다니는 사회가 노르웨이이다. 노벨 평화상도 스웨덴에서 수여하지 않고 노르웨이에서 수여한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금) 노르웨이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 한 큰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기독교 극우주의자”라고 자칭한 32세밖에 되지 않은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가 1997년부터 준비한 테러를 결행한 것이다.

오슬로 정부청사를 폭탄으로 테러하여 8명을 살해하고 오슬로에서 약 30 킬로미터 떨어진 우퇴우아(Utøya) 섬에서 노동당 청년집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경찰로 위장하여 덥덥탄(총탄이 몸 안에서 터지는 탄)을 난사함으로 6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테러 사건으로 77명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그는 이 테러가 이슬람(Islam)으로부터 유럽을 구하기 위한 성전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약 1500페이지에 달하는 “2083년 유럽의 독립선언”이란 제하의 문건을 통해 테러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테러가 왜 정당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십자군에 비유하여 유럽을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Islam)으로부터 유럽의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 이런 잔악한 행동을 결행했다고 말한다. 그가 자신의 문건의 제목을 “2083년 유럽의 독립선언”이라고 부친 것은 1683년에 비엔나 전투에서 기독교군이 오스만튀르크 이슬람 군대를 무찔렀는데 이로부터 400주년이 되는 2083년까지 유럽에서 무슬림을 몰아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브레이비크가 “기독교 극우주의자”라고 자신을 칭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브레이비크의 테러 행위가 “기독교 극우주의” 혹은 “기독교 극좌주의”라는 명칭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브레이비크의 테러사건이 터지자 신문매체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드러

내고 있다. 마치 기독교 근본주의가 테러사건의 배면에 깔려있는 사상이나 된 것처럼의 구실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 마디로 이런 종류의 테러사건과 기독교 근본주의는 전혀 관련이 없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주장했을 런지 모르나 그는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20세기 초에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해서 주장한 신학사상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 사건들을 모두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초자연성을 배제하는 이론을 펴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 탄생, 대속적 구원, 예수의 육체부활, 예수의 재림 등 다섯 가지 핵심 교리를 제창하게 된 이후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사회의 변혁에 대한 관심이 약하고 일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테러나 범행을 조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 근본주의는 테러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므로 브레이비크의 테러행위는 천인공노할 악행으로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할 사실은 브레이비크가 테러 준비를 시작했던 1997년은 그의 나이 겨우 18세 정도라는 사실이다. 18세 어린 청년의 머리에 어떻게 이런 과격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을까? 성경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는 객관적 계시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다.

그리고 무슬림을 포함해서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극우 쪽으로 기



총장 박형용 박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울어도 테러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이고 개입주의가 광배한 나라이다.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가 합리주의, 이성우위주의, 포스트모던 사고에 매여 허우적거리고 있다.

노르웨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많은 잠식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브레이비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데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객관적 계시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면 절대로 테러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브레이비크는 십자군을 자신의 행동 모델이라고 말한다. 그는 십자군이 무슬림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싸운 것처럼 자신도 유럽의 기독교를 무슬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테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에 원하는 운동도 아니요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는 운동도 아니었다. 오히려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운동이었다. 마치 하나님이 무능해서 성지를 무슬림들에게 빼앗겼는데 십자군이 이를 찾아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겠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산타야나(G. Santayana)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재연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브레이비크의 테러사건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의 바른 교훈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행태가 후세의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모델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반성하면서 성경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3류 저질 쇼, 웃기는 여론조사 맛이 간 세상

6일 백신개발자 안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광우병축분폭동을 배후에서 조종지원해 온 ‘희망제작소’ 박원순이 10.26 서울시장보선 후보단일화 쇼를 펼친데 이어서 민주당 한명숙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과도 단일화 원칙에 합의했다. 박원순과 단일화 쇼로 성가를 올리는데 성공(?)한 안철수가 2012 대선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출마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겨 놓자 신

문방송 등이 앞 다퉈서 ‘철수 띄우기’ 경쟁이 일고 여론조사가 관에 일감이 밀려들고 있다.

과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25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서울시장에 입후보

安風 매직 쇼에 우롱당한

민심에 대못질하는 악의적 여론조사

그런데 공직선거법 상 금지 산이나 금고이상의 형, 선거법 및 정치자금 법 위반 5년 미경

할 수 있으며,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오늘 현재 서울시장 예비후

보로 등록 된 사람은 9월 6일 등록한 한국기독교당 정훈 씨와 9월 9일 등록한 민주당 이정배 단 2명으로서 단일화 소동을 벌인 박원순이나 안철수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으며, 한명숙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각사는 호기심천구 수준의 여론조사 놀음에 열을 올리고 있다. 60~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사내아이들에게 물으면 대통령 아니면 장군 이 되고 싶다 했다. 안철수라고 해서 대통령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기성정치에 신물이 나고 친이계의 독선독주와 종북빨갱이집단의 횡포에 넋덜마가 났다고 할지라도 박근혜:정몽준, 박근혜:김문수, 박근혜:손학규, 박근혜:문재인, 국정참여 경험자는 몰라도 박근혜:안철수 백신장사는 그림이 아니 된다.

물론 이런 현상자체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며, 자조와 자학임은 안다. 그러나 정론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말도 안되는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 매직쇼와 그 여파는 대의정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정치를 회화하는 저질 3류 코미디에 불과하다.

백승목 칼럼리스트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8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부활교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5: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7:30

담임목사 : 이재원

교 회: 459-11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8-1
☎ 031-611-0191, 011-792-0191
e-mail: leepastor0191@hanmail.net

승리교회

표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히6:14)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9:00

담임목사 : 김효순

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95-5
☎ 010-3025-4625

동서울교회



담임 지영철 목사 외
교우 일동

담임목사 : 지영철

(134-85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9-3
☎02)474-1353 011-413-1229

곽영민 목사 심령회복 성회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경인부흥사협의회 기획자.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사무총장.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
저지스 타임즈 인천지사장 및 본사 편집국 부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소속.
(예·장동불교회 개척 및 담임.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설립 및 원장.
은누리 선교회 2대 회장.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성 · 회 · 일 · 정

8월: 목요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성회” / 매주 / (인천)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센터(등불교회).
15일(월)-18일(목) 대구 한나 기도원(원장 권태욱 전도사).
19일(금) (백학)부활교회(담임 이재원 목사)/ 금요성회.
29일(월)-31일(수) 현리 치유센터(원장 김인순 목사) / 세주부협 제6차 정기 총회및 수련회 주관.

9월: 목요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성회” / 매주 / (인천)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센터(등불교회).
5일(월)-8일(목) (인천)세창초 기도원(원장 김주향) / 가을맞이 대 성회.
19일(월)-22(목) (순천)순원 영성원(원장 최승미 목사) / 심령회복 성회.
23일(금) (대구)성령 기도원(원장 김종표 목사) / 심령회복 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 협의회”에서
함께 하실 부흥사를 모집합니다.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http://kmission.onmam.com
cafe.daum.net/kmission
☎032-891-0651, 010-2080-0651
담임목사: 곽 영민

세계로개혁신학 · 신대원

합동개혁신회



이사장 : 홍 두선 목사
총장 : 신 동수 박사
학장 : Dr . David Kim

학장: 데이비드 김 목사
청주 수곡2동 청주우편집중국 버스정류장 앞
☎ 010-2802-3928 / 070-7581-0012
e-mail: yhk62@hanmail.net

행복샘 교회

표어: 좋은 만남 · 행복한 성도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11:00
주일오후	오후 1:40
수요일 밤	오후 7:30
금요일 밤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매일기도회	자유로이

담임목사: 박 수 영

교 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2(지하철 1호선 신천역 하차, 신원지아파트 옆)
☎ 053-752-8238, 010-8537-8291
e-mail: boas7@hanmail.net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사 환영)

원 장 : 곽순춘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웨신신학교 2011 가을학기 개강 및 졸업예배

웨스트minster신학교가 총회직영신학교로 확정되어 축제의 분위기 속에 개강 및 졸업식 가져

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에서 정식직영신학교로서의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후 본교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 새롭게 가을학기를 맞은 웨스트minster신학교(학장 정기환 박사)이다.

축하 속에 본교는 가을학기 개강 및 2011년도 하반기 졸업식예배를 9월 8일(목) 오후 7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소재 본교 강당에서 졸업생 가족들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학장 정기환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교수 권병철 목사가 기도를, 정성철 교수가 요한복음 21:1~7절을 봉독하고 본교 무용과 재학생의 위습과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학장 정기환 박사는 "사도요한의 묵화"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신학교 발전을 위한 헌금시간을 갖고 교수 임철환 박사의 권면이 있었으며, 학장 정기환 박



사는 본교의 교수진을 소개하고 학사일정에서 8월 2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9월15일(목)부터 강의에 들어가며, 10월 11일 졸업논문 지도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중국 목회자 30명을 초청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11월 28일부터 기말 고사가 있고, 11월 28일~12월 3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선교(케냐, 르완다, 부룬디)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12월 12일 사순절을, 25일 성탄절, 31일 송구영신예배가 드려지고, 2012년 1월 3일 신년하례식과 1~2월 방학기간 중 특강 및 세미나를 갖고, 3월 6일 새학기 개강에 대해 밝히면서 광고했다. 이어 교가제창이 있는 후 학장 정기환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장 정기환 박사는 본신학교 및 캐나다 크리스천 대학의 2011년도 가운데 가을학기가 은혜 중에 개강하게 됨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며, 절차에 의해 직영신학교로 새롭게 출발한 본교는 이미 조인된 캐나다 크리스천대학은 북미 보수개혁신학의 요람으로 목회자 최고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학장은 유능한 교수진과 행정력, 평생교육원 및 사단법인 등 배후의 기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에서는 표준을 제시하고,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본교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애정과 열정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피력했다.

웨스트minster 총회직영신학교(캐나다 크리스천대학) Phone(050)5555-9191~2, (032)323-5552

강신숙문화예술신학원 신 대표총재 1억 약속

신현옥 대표총재 취임사에서 신학교 발전과 신학생 위해 최선 다짐!

강신숙 문화예술신학원장학회는 지난달 18일(목)오후 7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소재 화성시온은혜기도원(원장 신현옥 목사)에서 본원 장학회 주축로 신학생을 돕는데 뜻을 같이하고 채움 콘서트를 가졌으며, 이 시대의 영력 있는 선지생들을 훈련시키고 한국교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강한 사명자로서 영적무장과 파워 넘치는 사역자로 성화되기를 원하면서 원장 신현옥 목사를 감사로 부흥성회를 가졌다. 이어 신학원 학장 강신숙 목사 사회로 2011년 제66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가 진행되어 먼저 시온은혜기도원 원장 신현옥 목사를 본 신



학원 장학회 총재로 추대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강신숙문화예술신학원장학회의 대표총재로 취임한 신현옥 목사는 세계기독교부흥사협의회 여성총재, 한국기독교복음단 체총연합 여성총본부장, 시온성 세계산교복지재단 이사장, 재미재단 세계복음화 협의회 해외위원장, 국민비전 부흥사협의회의 운영회장, NGO국제 마약 감시위원장, 그 외 많은 단체의 직함을 갖고 있으며, 예장 시온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이다.

신 대표총재는 "고난이 축복이라"하심 말씀을 새삼 가슴 깊이 새기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의 축복과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부족한 중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환란 중에도 함께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좋은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

이 사르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타함과 굴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답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할 것이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신 대표총재는 그 동안 자를 아끼주신 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인내로써 끝까지 싸워 세계적인 사랑의 복음전파자가 되기까지 마지막순교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신학원의 어렵고 소외된 신학생들과 신학원을 위해 대표총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취임사를 전했다.

한편 본 신학원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1억 원을 약속했다. 이어 대표총재 신현옥 목사의 설교가 있을 후 축사, 격려사, 권면이 이어지고, 대표총재 축도로 마쳤다.

사)선진화운동중앙회 강남사무소 개소식 가져

국민화합, 선진인류국가 건설 사)선진화운동중앙회 (대표 고종욱 장로/소망교회)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상제리제빌딩)에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강남사무소 개소식과 신임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상임대표 고종욱 장로

총장 사회로 진행되어 국민의례로 애국가 제창과 묵념이 있은 후 위촉장 전달과 임명장 수여와 축사가 이어지고 내빈 및 임직원 소개와 함께 대표 고종욱 장로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날 대표 고종욱 장로는 "본 중앙회 사무실은 국회 앞 금산빌딩과 광화문과, 강동구 등에 있으며, 특히 이날 강남사무실을 개소하게 된 것은 교회가 편리하고, 전국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조직이 커지고 기구가 확산 되는 등 분화가 많이 개소할 수록 좋다. 또한 본회는 다음세대를 향한 전국민운동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선진화운동중앙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전국민들이 선진화의 필요성을 새겨두기 위하여 서면서부터 말씀대로 했고, 통치권이나 정치가 관에서라든지 모든 기업도 선진화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진화 기구들이 생겼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진 중앙회는 언제나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선진화운동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행한부와

같이 약 3년 전에 시작을 했다. 그러나 준비하고 발기하기까지는 4년이 걸렸으며, 그동안 많은 행사를 통해서 성장한 가운데 전국조직이 강화되었다.

원래 새마을 운동도 정치성이란지 이런 것은 없었고 국가발전과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잘 살아보세"라고 했는데 선진화운동중앙회도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성은 없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3대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었고, 본 중앙회는 창조, 실용, 사랑, 이라는 3대 목표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 또한 창조, 실용,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민을 화합시키고 긍정의 문화,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본 중앙회의 세부적인 목표이며 강령이다.

그래서 처음에 4년 전에 제 1회 행사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했고, 그때 성기조 박사를 주 강사로 초청하고 주제가 국민을 화합시키고 하나 된 사회, 그것은 사랑의 정신과 긍정의 문화가 바탕이 되고 기초가 없이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긍정의 문



선진화운동중앙회 개소식 감사예배

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시작을 하자...그렇게 했다. 또한 우리 국가가 혼란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광우병을 비롯 말이 안 되고 상상을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되는 한국에 반대적인 이상한 그런 혼란이 왔을 때도 우리는 긍정의 문화와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로에서 창계천광장에서 또는 전국에 있는 시도 큰 강당이라든지 광장에서 계속해서 강연어나 토론회를 이어갔다. 긍정과 화합의 문화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슬기와 역량을 집결시켜야 된다. 그때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또한 본회는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 각계각층에 보낸 결과 몇 십만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극단적인 시위가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왔다.

선진화운동중앙회의 조직은 지역 조직과 직능조직이 있다. 지역조직은 행정구역으로서 예컨대 경기도 연합회는 현 좌파 교육감이 아닌 직전 교육감 김진춘 씨가 경기도 연합회장을 맡고 있고 본 회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종진 목사 9월 국내·외 성회 일정

1(목)~ 3(토)	태국(Thailand) 푸켓, 동서문화목회자세미나
2(금)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목회실천연구회(원장 피종진 목사)
3(토) 오후	일본 예수생명교회(노요한 강도사) ☎ 016-9315-7354
	제166차 해외성회(166th Overseas Assembly)
4(주)~ 7(수)	일본(Japan) 나라타 김명신학교(원장 강태열 목사) ☎ 070-8625-9118
5(월) 오전	일본(Japan) 동경 목회자 교회성경세미나
	주최: 동경목회회
5(월) 오후	미국(U.S.A) Henderson C. 대학교(총장 Dr. Belk, 목회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한국지역 목회자연구세미나
7(수) 오후	엘루제일장로교회(오인근 목사) ☎(032)761-7645
	주최: 민족복음화중앙협의회
8(목) 저녁	부천 세계기독교센터(원장 민홍만 목사) ☎(032)329-9182
12(월)~14(수)	미국(U.S.A) 미국장로교단(P.C.A) 목사 안수식 행사
16(금)~18(주)	미국(U.S.A) 남가주 선교연합대성회 주최: 남가주한민교회(회장 박효우 목사)
	장소: LA 동성대학교 ☎(213)503-3355
19(월) 오전	미국(U.S.A) 남가주 한인목회자세미나(사무총장 정요한 목사)
22(목) 오전	안성 기독교신학대학(원장 김영현 목사) ☎(031)656-8799
26(월)~29(목)	부산 김명신학교(원장 이윤관 목사) ☎(055)375-0831
29(목)~30(금)	JS TV 위성방송 연합성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장소: 부산 해운대 JS 위성TV 예배실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스타임즈 사장
- 지터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7월

- 5-7 성신교회(이명배 목사)
- 1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12-16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 19-22 에바다순회(최민숙 원장)
- 23 21세기성령회 운동본부연합집회(노베드로 목사)
-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010년 8월

-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이 원장)
-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9-12 성산중앙교회(윤호근 원장)
-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 23-25 전업모임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 26 양명음악기도원(임기호 원장)
- 26-27 김명신학교(김기정 원장)
- 30-9.1 푸른초장교회(김종철 목사)

2010년 9월

-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6-8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
- 13-16 교단총회
- 15 경동교회(백현기 목사)
- 20-24 인도선교전(병길로)
- 26-28 성산성결교회(안상기 목사)

2010년 10월

- 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 8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 11-12 정기노회
- 12-14 주영광교회(김성우 목사)
- 16 김명신학교(유택진 원장)
- 17-20 동서성신교회(라계동 목사)
-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 24 주님의 교회(양한기 목사님)
-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5-27 초대교회(이종희 목사)
- 28 천안이념지는 교회(김항주 목사님)

2010년 11월

- 1-3 신천장로교회(강영규 목사)
- 8-10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 15-17 수원평안교회(김완구 목사)
-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 26 소망기도원(연인애)
- 임마누엘중앙교회(이수영 원장)
-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9-2 00선교지방문

2010년 12월

- 3 김명신기도원(임예재 원장)
-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열 목사)
-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 20-24 00선교지방문
-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7-29 논곡제일교회(소도영 목사)

2011년 1월

- 1/1 김명신기도원(임예재 원장)
-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홍 목사)
- 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 13 김교단 제직세미나
- 16-19 성마루교회(김종희 목사)
-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4-7 김명신기도원(이옥관 원장)

2011년 2월

-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 6 초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 7-9 순산중앙교회(김정진 목사)
-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14-17 성산중앙교회(윤호근 원장)
- 20 한일중앙교회(최창규 목사)
- 21-23 미추홀교회(전용구 목사)
- 24 김명신기도원(임예재 원장)
- 27-3/2 원동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 성서교회(권태영 목사)
- 7-10 장성신학교(김종학 목사)
- 13-1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28-31 은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7-9 김명신기도원(임예재 원장)
- 10-12 정기노회

-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18-20 내국교회(함형민 목사)
-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 2-4 서울서지방역전도연합성회
- 9-12 김명신기도원(임예재 원장)
-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16-18 동대천교회(홍우영 목사)
-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 31-6.3 선교지방문(노화선교회원회)

2011년 6월

- 6-8 소망기교회(이종찬 목사)
- 9-17 성산기광문
- 17(금) 김명신기도원(임예재 원장)
- 20-22 한일중앙교회(성남구 목사)
- 26-7.2 삼마특별기대성회

2011년 7월

-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 18-21 소망기교회(연인애 원장)
- 25-27 원주변교회(김종호 목사)

2011년 8월

- 1-4 금산임마누엘중앙교회(이수영 원장)
- 5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8-11 광운기교회(김한배 원장)
- 15-18 김명신기도원(이옥관 원장)

- 22-25 천문기도원(최정수 원장)
- 23 오소리 금식기도원
- 29-9/1 도곡산기도원(양재원 원장)

2011년 9월

- 5-9 은누리복음화협의회(임기호 총재)
-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용 목사)
- 19-22 교단총회
- 26-28 성령교회(김종우 목사)

2011년 10월

- 2-5 양주 비전교회(김학현 목사)
- 10-11 정기노회
- 11-13 한빛중앙교회(김종학 목사)
- 17-19 온전교회(서재동 목사)
- 23-26 성서교회(송영호 목사)
- 27 오소리 금식기도원
- 31-11/2 광릉교회(김성우 목사)

2011년 11월

- 7-10 모현 제일교회(이규산 목사)
- 14-17 기동축복성회(예복교회)
- 21-25 성산기광문
- 28-30 서경교회(김창수 목사)

2011년 12월

- 5-7 대흥교회(정남기 목사)
- 12-16 인도 선교회
- 19-22 소망성령회(연인애 원장)
- 26-28 반석중앙교회(이영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목회자가 세상 법 모르면 ‘낭패 당해’

경북대학교 글로벌기독센터 건립 추진보고회

취근 남양주 국공립어린이집 훼방사건



준비된교회 전종연 목사

세상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공격에 물려가고 있다면 목회자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너무 철저히 법을 따지며 미리부터 대응하고 나서는 비난과 눈총에 직면하기 십상이고, 은혜롭게 수용하고 이해만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마저 발생한다.

최근(CUPNews)에 의하면 남양주에 위치한 준비된교회(전종연 목사)는 올해 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목표로 시설을 완비하고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애초에 사설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국공립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교사들의 봉급과 아이들 보조금도 지원되기에 최고의 교

사를 고용할 수 있고, 먹거리도 최고로, 교육자재도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다음세대를 세운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종연 목사는 국공립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독 건물을 가져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와 별도로 어린이집 건물을 건축했고 갖은 시설까지 갖춰놓은 상태다. 하지만 교회 바로 옆에 모 사설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해서 허락해 준 것이 옳기가 되어 어린이집 허가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바로 사설어린이집측에서 사설 어린이집연합회까지 동원해 남양주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국공립어린이집 허가에 적극적으로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는 별도로 운영되어 서로 피해는 없을 것이라던 사설 어린이집측은 안면

력을 가한 것이다.

심지어 사설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 98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사설 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전부터 준공을 마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던 전 목사는 기가 막혔다. 게다가 8월18일 남양주시청 보육정책위원회가 모였으나 당연히 허가가 날 줄 알았던 것이 연기되자 전 목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뒤늦게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전 목사는 탄원서에 서명한 원장과 교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명 여부를 확인하다가 다시 한 번 어이없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들은 사설어린이집이 먼저 세워져 있었고, 그 후에 교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며 사설어린이집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어린이집측은 ‘국공립은 빛이 있으면 안된다’는 등, ‘어린이집으로 돈 벌어서 교회 대출자자를 갚으려 한다’는 등 유언비어까지 유포하고 있었다. 전 목사는 이를 문제삼아 민형사

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탄원서에 서명했던 원장과 교사들이 법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서 서로 전화하고 니탓이니 내탓이니 혼란이 빚어졌다.

주변의 학부모들도 ‘국공립도 생기고 사립도 생겨서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 왜 사립에서 가가 날 줄 알았던 것이 연기되자 전 목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뒤늦게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전 목사는 탄원서에 서명한 원장과 교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명 여부를 확인하다가 다시 한 번 어이없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들은 사설어린이집이 먼저 세워져 있었고, 그 후에 교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며 사설어린이집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어린이집측은 ‘국공립은 빛이 있으면 안된다’는 등, ‘어린이집으로 돈 벌어서 교회 대출자자를 갚으려 한다’는 등 유언비어까지 유포하고 있었다. 전 목사는 이를 문제삼아 민형사

경북대 글로벌기독센터 건립 추진보고회가 지난달 30일 12시 호텔제이스(동대구고속터미널근처)에서 열렸다. 경북대학교 전담 이상욱 목사 인도로 1부 예배, 2부 환영사로 이성기 교수(경북대 복음화후원회장)은 그동안 학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3부 김석삼 교수(글로벌기독센터 건립위원장)의 그간의 학원선교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의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되어 글로벌기독센터 건립[5층 신축건물]에 동참하는 일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우리의 후손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과 사랑의 표현이요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미래의 소망을 열여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당부했다.

훈련된 기독인재 양성의 요람-경북대 기독센터

경북대학교는 학내에 일반 기숙사처럼 기독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학원복음화를 위해 기도, 성경공부, 경건의 시간과 체질을 통해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숙사와 선교센터가 결합된 기독센터가 지리 잡고 있다.

또한 경북대 기독센터는 현재 기원, 학과 기독인 모임, 선교단체, 교회모임, 기독 교수회 등 모든 기독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원복음화와 선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많은 기독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신앙인격을 함양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된 실력을 갖춘 많은 기독인



재들도 양성되고 있다.

게다가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파와 소속 선교단체를 넘어선 연합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학원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교 내부에 특정 종교를 위한 기숙사 시설이 갖추어 진 곳은 경북대가 유일하다.

경북대 기독센터의 시초는 1955년 설립된 경대기독교학생회관이다. 학원 내 생활과 실천을 통한 대학 복음화와 지역교회 봉사를 위해 경북대 기독교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4개국 14개 대학 기독학생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경북대학교 교병간 초대 총장의 후원으로 1955년 경대 기독학생회관을 건립, 세례교인 22명이 입사하여 생활했다.

1977년에는 초기의 기독학생회관이 경북대학교 종합계획으로 할리게 되자 기독인 교수 유지 일동이 회관재건위원회를 발족하여 15개 교회와 본교 교수 20여 명, 회관 선배 및 학생 30여명, 기독실업인 및 일반 교인 15명의 헌

금과 김영희 총장의 호의로 1976년 5월에 착공하여 1977년 5월에 완공하였다. 1984년에는 한명수 총장의 호의로 2층 방 3개와 3층 예배실을 증축하였으며 기독센터 구관이 1984년 이후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기독센터에서는 선교단체, 학과 기독인 모임, 교회 단체 등 각종 집회 및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북대 기독인의 열원인 연합대학에배를 예배와 전도를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기독센터에서 드리고 있다.

또한 경북대 기독학생들의 연합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섬기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복음과 연합’의 의미를 매년 1학기에 개설하고 있다. 이외에 21세기 대학선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복음화소식지를 통한 대학선교 정보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지사 박수영 기자

김석균 복음성가 2011년 작곡발표회(13회)

27일 안양 평촌 소재 새중앙교회서 저녁 7시 30분

〈사랑의 종소리〉〈예수가 좋다요〉〈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등 수많은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김석균 찬양선교사가 열세번째 작곡발표회를 연다.

1985년 중앙성결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성가 작곡발표회는 2년에 한번씩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바로 한국 복음성가의 역사를 써 가고 있는 것이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ed와 Th.M 공부를 마친 그는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니며 찬양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

서울 문인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그가 2000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전도자

로 전임 찬양사역자로 쓰임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발표한 수많은 복음성가는 가사부터가 다른 찬양곡과 다르다. 그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가사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사로 작곡해서 발표한 음반이 15개나 된다. 이번 작곡발표회를 맞아 16집 음반도 출시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신곡(16집 음반 수록곡)들은 발표회 때 선보이게 된다. 한국 교회 부흥과 영적 성장에 촉매가 되길 기도하면서 작곡한 곡이라고 한다.

제 11회 김석균 복음성가 작곡 발표회는 안양 평촌 소재

새중앙교회(박종식목사 031-425-3000)에서 2011년 9월 27일(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전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여하며 5,000명 정도가 입장을 할 수 있다.

출연하는 찬양사역자는 장욱조, 노문환, 김민식, 최미, 전용대, 김종찬,

이용래, 다윗과 요나단, 박주옥, 이정림, 남궁송옥, 장운영, 김정석(시와그림),곽기종과 라브르드비, 김주현트리오 등이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코트디브아르에서 사역을 하는 곡기종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로 수익금 전액은 선교관을 짓는데 사용한다. 입장권은 만원(10,000원)이며 교회에서 단체로 참여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연락처 (02) 2616-3950, 010-5268-0151(김석균)

24년간 괴롭혔다...잠자던 남편 목졸라 살해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주부가 부부싸움 뒤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9일 전날 밤 11시50분께 대전시 동구 용운동 한 아파트 A(45·여)씨의 집에서 잠자던 남편(4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남편과 다툰 뒤 잠들어 있는 남편을 찾

는 이날 평소처럼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 잠든 남편을 욕실에 있던 수건을 이용, 목 졸라 살해했다. 24년 전 결혼한 A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외지로 나간 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이날 남편을 살해한 뒤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밝혔고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육성과 폭력에 시달렸다. 술 취해 잠든 남편과 이날도 싸움을 했고 화끈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이날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인이 확인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날도 술에 취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 살인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2011년 포어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요4:24)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2시
심일밤 오후8시 금요기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담임 모상련 목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혜사	1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회당
	자녀예배	오전 7시	3.4층 대 회당
주 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회당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회당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회당
	통산부예배	오전 9시	5층 통산강독
주 일	대학부예배	오전 9시	5층 통산강독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중앙
주 일	유아부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회당
	유아부	3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센터
주 일	유아부	4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회당
	유아부	5회 오전 11시	2층 통산강독
주 일	유아부	6회 오전 11시	2층 통산강독
	유아부	7회 오전 11시	2층 통산강독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 김농주 목사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8: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알파과정	오후6(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관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169-210 (5층)
☎ 02)951-4331 935-4611 H.P 010-6350-4611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 분	시 간
새벽기도회	새벽 5:0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353-5830 H.P 010-8585-9137

퓨전식 소스 삼겹살 전문점



뭐꼬 허브 삼겹살?

상상한 삼겹살에 생 허브를 넣어 숙성시킨 것으로 돼지고기의 비릿한 내음을 제거시키고 소화촉진을 돕습니다.

Basil(바질): 입맛을 돋우며 소화 촉진 효과(원산지: 인도).
Rosemary(로즈마리): 좋지 않은 냄새 제거효과(원산지: 지중해).
Thyme(타임): 경련해소 작용 효과(원산지: 중유럽).
Basil(로즈마리): 향기작용(원산지: 지중해).
Tarragon(타라곤): 향기 및 소화(원산지: 시베리아).
Oregano(오레가노): 꽃 박하라 불리며 상쾌한 맛 제공(원산지: 유럽).

임지탕 수제비는?

들깨 + 도토리 수제비로 참깨, 검정깨, 들깨가 어우러진 수제비로 구수하고 영양 만점의 웰빙 건강 음식입니다.
임지탕 수제비 한 그릇에 5,000원, 고기도시락 4,000원.

경북 김천시 부곡동 1490
홍성수,김희숙 집사 H.P 011-532-1348
체인점 문의: 054-437-6906

문예 응모 수상작품

신인 당선작품 <시 부문 대상>

신인 당선작품 <시 부문 대상>

사랑은, 목숨 불태워

조 바울

여기쯤 있었을까

내가 찾은 머뭇거리던 길
마른가지 기대고서서
기린 긴 밤 지새던 곳
북극성, 섯별이 되어
내 갈 길 가리키던 곳

절망의 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병목이다
막다른 벼랑처럼 / 춤고 어둡고 더디온다
각혈을 토해내듯이 / 아프고 숨가쁘다

박제되어 죽은 골짜기 / 첩자처럼 숨어들어
봄바람은, / 굳어진 가슴 아랫도리 더듬다가
끝내는 불 질러 놓고 / 불이야 외쳐댄다

어느덧 네 얼굴은 / 한 떨기의 불이었다

가지엔 주렁주렁 / 연등불을 매달았다

사랑은, 목숨 불태워 / 어둔 세상 밝히는 것

당선소감

높은 하늘에서 찾지 못한 것, 낮은 땅에서 찾다



목사 조바울 시인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1960, 3, 11년생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수료
건국대학교 해외선교사아카데미 수료
국제 하늘 문 교회 담임목사
연락처 : 010-7588-3927

바람으로 광야 사십년을 떠돌았다. 무거운 것 버리고 가벼운 것 찾아서, 고단한 것 버리고 편안한 것 찾아서,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 찾아서, 사십년을 바람처럼 그렇게 떠돌았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답을 주는 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막히고 갈동무도 없이 나 홀로 가던 길, 높은 산 길 내려와 다시 사십년 만에 다다른 시궁창 같은 뒷골목,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새벽 단꿈에서 깨어나 맞이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아침, 풀지 못한 영원한 '화두' 하나, '나는 누구인가' 높은 하늘에서 찾지 못한 것, 낮은 땅, 시궁창 밑바닥에서 찾은 거라. 나는 더 낮은 세상을 향해 내려간다. 내가 나의 조국,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나에게 문학과 신학을 통해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신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스타임즈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올리며, 국제 하늘 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를 기뻐처럼 사랑과 기도로 받아주는 나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9월 한가위, 벨엘 광야에서,
조 바울

바람의 이름은, 디아스포라

최 영옥

이부자리도 없이 /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

나를 찾아 길 떠나는 기나긴 여로
내가 어느 날 부턴가 위태로운
발돋음을 시작했을 때 / 작두 날 위에서 춤을 추며
천도 제를 올리는 신녀의 모습이었지
이승의 나로부터 멀리 떠나보내는 살풀이 춤

거기서, 바람은 바람끼리

가슴 문지르며 밤 지새고 / 광야, 그 죽음의 자리가
바람은 새 역사를 잉태하는
출생의 태(胎)자리라 했지

밤새도록 올부짓는 들짐승소리

멀리서 말 달리는 징기스-칸 후예들
그 들이 산다는 것은 / 언제나 버리고 길 떠나기

몸은, 항상 여기 머물면서

마음은 저기를 꿈꾸지
그래서 바람은 짐도 몸도 가볍다

내 친구, 바람의 이름은 / 디아스포라

당선소감

디아스포라, 한 송이 민들레



목사 최영옥 시인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1966, 6, 17년생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수료
건국대학교 해외선교사아카데미 수료
연락처 : 010-8938-3010

흔비백산 모래바람에 쓸려 디아스포라 되어 멀리 떠난 것은, 세상 한 바퀴 허겁지겁 에둘러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서, 아득히 멀어져 갈수록 목매이게 당신 이름 부르며 하늘로, 하늘로 높이 떠오릅니다. 달랑 꽃씨 하나 매달고 지도에도 없는 땅 물어물어 떠나는 길, 거기, 당신 모습 아니 보여도 가슴 깊이 이름으로, 항상 내 곁에 살아계시는 당신 끝내는, 이 세상 유희(遊)처럼 땅 끝까지 몇 바퀴 떠돌다 지친 골짜기 거기누어 당신 발치 양지쯤에서 한 천년 잠들었다가 파릇한 어느 봄날 아침 살포시 미소 지으며 노란 민들레 한 송이 눈 뜨게 되옵니...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수년 동안 문학과 신학을 통해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신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스타임즈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올리며,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9월 한가위 무렵,
최 영옥

심사평



박영남 교수

* 건국대학교 해외선교사아카데미 교수,
* 목사, 시인, 문학평론가
* 저지스 타임즈 상임이사
* 연락처 : 010-9257-3844

드높이, 희망으로 가는 길목은 언제나 가파른 병목이다. 세상의 문 뒤에서,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 허무에 닿기 위해 문 두드리며 기나긴 꿈을 꾸는 목마름이다. 당신 향한 사람은, 어둠속에서 동굴 밖을 바라는 항일성의 그리움이다. 눈빛만 살아 반짝이는 여름, 해바라기, 깨고 나면 허탈한 어둠속의 날개 짓이다. 차원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벼랑 밑으로 수없이 추락하는 목숨 건 곤두박질 몇 번이 었든가. 하늘 길 우러르며 양망하던 독수리 날개 짓, 몇 번이었던가. 생애, 단 한 번의 가슴 벅찬 비상을 위해.... 조바울, 최 영옥 두 시인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하늘 길과 땅의 길

두 분은 목숨 건 기나긴 광야 길 40년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두 분의 문학의 순례 길은 사치스럽고 호사스런 길이 아니었다. 존-번연의 천로역정의 순례자처럼,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 40년을 달려가듯 목숨 건 순례자의 길이였다. 조 바울의 시 '절망의 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병목이다. 막다른 벼랑처럼 춤고 어둡고 더디온다. 각혈을 토해내듯 아프고 숨 가쁘다.'에서나, 최영옥의 시 '거기서, 바람은 바람끼리 가슴 문지르며 밤 지새고, 광야, 그 죽음의 자리가 바람은 새 역사를 잉태하는 출생의 태(胎)자리라 했지...'에서 보듯이 나를 찾아 떠나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두 분의 앞날을 기대한다.

선한농장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수익의 일부는 **봉우이웃돕기**와 **사랑의 반찬나누기**로 후원합니다.

점점과 생명나눔

사랑이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린다면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전화주문+배달/아이스박스 포장+택배 가능합니다(포장택배비 5,000원별도)

옛날양념갈비			
단가:(10대)27,000원			
순양양념돼지 왕구이		순양양념돼지 왕구이	
1대	4,000	1대	3,000
국내산 5대	18,000	미국산 5대	14,000
10대	35,000	10대	27,000
양념 고추장 분고기 (1.2kg 1팩)		(양념) 통벌집삼겹살 (1kg 1팩)	
12,000원 → 11,000		12,000원 → 11,000	

소양념 분고기 (1.2kg 1팩) 13,000원 → 12,000

양념북분자 왕소구이 (2.5kg 5대) 28,000원 → 25,000

(전통) 수제 떡갈비 (500g 1팩) 6,000원 → 5,000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농장

010-9183-6727

양념육의 명가(도소매 서비스)

마천본사직영점 02-406-6592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6번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사람들”

선한농장



마천본사직영점 010-5553-4450/010-9183-6727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6번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6)

세 번째로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요 11:19의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 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요 11:18의 베다니가 예루살렘까지 한 오리쯤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자주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그것이 의가 되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나사로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갔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기다리셨다가 베다니에 오셔서 요 11:25:26절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1:43절의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육체만 소생된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신 반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유대인의 잘못된 가르침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몸으로 다시 살리신 반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눅 7:12의 성을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때만차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나인성읍의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높임을 받고 영광은 사람이 받을 수 없고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높임과 영광을 받은 것으로 인해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몸으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 다. 오늘 우리도 사렙다 과부와 같이 육신의 복 받는 것으로 감사하면 그것은 영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복을 감사하는 자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고통과 환란이 따르고 나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과 같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맺는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죽은 신앙으로부터 영원한 복, 참된 복을 위한 몸으로 부활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육체대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영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본지 상임이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택한 자인가를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한다.
이렇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이들은 회통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임, 톱으로 썰임, 칼에 죽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에 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려본바와 같이 성도들의 부활순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였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 20:4절 이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는 자가 첫째부활, 즉 삼각적인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째부활과 히브리서 11장의 더 좋은 부활은 같은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벧전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때 순교로서 끝을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 19:9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회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양의 신부가 초대되는 데 흰 세마포는 계 6:9:11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 베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 즉 흰 옷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신부로 예비하는 것이며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 24:21의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앞으로 있게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 날에 순교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양의 아내로 예비되어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부활신학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발람으로 인한 교훈(6)

여호와와 심으신 침향목과 백향목들 같도다. 침향목과 백향목은 그 향이 너무 향기롭고 잘 썬지 않고 단단하기 이를 데 없으니 우리의 임마누엘 장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그리스도께서 못 박하실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⑦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보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보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보다. 통에 물이 넘칠 때 목마름과 허기짐이 없습니다. 종자들이 많은 물가에 있다는 것은 농사가 각종 과수와 양과 염소 및 가축 사육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보다. 그 당시 왕중에 가장 큰 왕이었던 아각보다도 더 높은 즉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할 왕 다윗을 예표합니다. 5월에서 7월까지 계속 물과 강과 동산을

현병우 목사

부천임마누엘선교회영성원
본지 부장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번창과 번영을 약속함이며 영적으로는 물은 생명수로 오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요7:37-39). 아각 왕은 세상 모든 왕들의 예표며 다윗왕은 오실 예수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지파로 오실 예수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8절-9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로 시작하여 그들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아무

청렴결백의 지도자

천수답은 물길에 없는곳에 층계처럼 논을 만들어 모를 심어 가을에 벼베기 하는 논을 말한다. 모내기 시기부터 비를 기다리는 논이다. 밤중에 라도 비가 오면 농부는 삼을 들고 논에 나가 논둑을 손질하여 빗물이 고이도록 한다. 만일 가뭄이 계속되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논이 천수답이다.

우리 몸은 70%의 수분으로 조성 되었으며, 체내의 혈액은 94%의 수분으로 건강을 유지 한다고 하니 물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삶의 필요로 요소들에 대한 감각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공기와 물, 건강체를 유지하는 모든 양식을 모두가 귀한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삶의 여정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청렴하고 결백한 삶에 많은 것을 느꼈었다.

책의 저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책명은 육영수이다. 그 많은 내용 중에 박정희 준장 시절 육군 전방부대 사단장으로 있을 시 어느 촌가 허름한 방을 얻어 생활한 내용이다. 그 해에 많은 비가 내려 부대원 모두가 비상근무를 하여 박정희 사단장도 영내근무를 하면서 이상 유무를 보고 받는 등 부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육영수 여사는 한집 방한 칸에서 방 윗목에서는 수도물처럼 비가 새어 물동이와 양푼으로 빗물을 받아 밖에 버리고, 아랫목에서는 아이들 간해. 군영. 지만이를 누이고 아이들이 잠에서 깨가봐 소리 없이 빗물을 받아내는 것이다. 당시 연 대장급 두 사람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목사
본지 상임이사



이 후시 사단장 집에 피하는 것을까하여 전령을 보내 집을 확인한바, 빗물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고 받고 대령 급을 두서너 명이 돈을 걸어, 양육집을 매입하였다.

육영수 여사는 고마운 마음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부대원들이 이삿짐을 옮겨 새 집으로 이사를 한 것이다. 박정희 사단장은 영내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는 텅빈 집이 되어 이웃에 물어 이사한 곳을 찾아가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새집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본 박정희 사단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소리쳤다. 아내 육영수 여사는 남편의 말에 잘못 했습니다. 상의하지 않고 당신 허락 없이 이사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하자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대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아름답고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아닌가?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 상이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 내가 어려움에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그는 돌아가서 부대에 비상을 걸어 도와준 부하들에게 혹독한 질책을 했다니!

또한 아내 육영수 여사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의미를 달지 않고 순종하여 살던 집으로 다

도 감당치 못하며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부어주신다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함은, 애굽은 세상을 말씀하심이고 세상은 그 당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단마귀가 주장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을 사단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친 백성 삼으심이고 이는 또한 세상을 주관하던 사단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온 세상을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 삼으실 예표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신(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축복한 발람이 민31장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 진멸할 때 발람을 칼로 죽였으며 발람은 왜 성경 곳곳에 물질탐욕에 눈이 멀고 명예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훼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꾼 거짓선지자 거짓 이단들의 경계요 대표 격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는지 교훈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주 예수께 돌립니다. !!!!

시 이사했다는 내용은 오늘 모든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라 생각된다. 최고의 권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인간 박정희의 아름다운 청렴결백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하는 것은 국민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비가 오지 않은 천수답에도 때가 되면 비는 내리는 것이다. 갑갑하게 기다리는 빗소리에 밤잠을 자지 않고 삼을 들고 나가는 농부의 즐거움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겠는가!

지도자는 청렴과 결백은 물론 국민을 위한 눈물과 농부의 즐거움처럼 사랑과 희생이 있다면 최고의 지도자로 존중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 오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 변화와 발전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많은 것 같다. 부정적 사고는 국가사회 발전을 저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요인이다. 그 틈새로 점차 확산되어 모든 것을 허물어트리는 결과를 초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G20국가에서 G3국가를 지향하는 발전 국가를 이루어야한다.

아이의 성장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따듯한 회초리가 있어야 훌륭한 사회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회초리 없이 자란 아이는 불량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사랑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틈새의 좌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측근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강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인간 박정희와 육영수! 그분들은 우리의 역사에서 좋은 기억으로 오래남아 있을 것이다. 지도자의 희생적인 사랑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석교회



담임 성봉경 목사
<웨스트민스터 총회장>

443-8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170-7
☎031)204-5580 011-721-6038, 010-3938-3983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2011학년도 1학기 신원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교회があります。



모상현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주요인원	전원인원	비고
연구부	목회신학사(MD)	전	4	주: 2:30~4:00pm 대: 4:00~5:00pm
	목회신학사(MMA)	전	4	
신학부	신학사(BA)	전	4	주: 2:30~4:00pm 대: 4:00~5:00pm
	신학사(BA)	전	4	
	신학사(BA)	전	4	
	신학사(BA)	전	4	
신학부	신학사(BA)	전	4	주: 2:30~4:00pm 대: 4:00~5:00pm
	신학사(BA)	전	4	

2.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원서접수: 2011. 9. 10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입학원서, 추천서(2부)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 후 연구원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3) 사회복무기간: 전문대학원 위촉 및 사회복무기간, 보호교사 2급, 계약복무사면전 자격 취득

4) 장학금

5) 장학금

6) 장학금

7) 장학금

8) 장학금

9) 장학금

10) 장학금

11) 장학금

12) 장학금

13) 장학금

5. 문의사항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 후 연구원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3) 사회복무기간: 전문대학원 위촉 및 사회복무기간, 보호교사 2급, 계약복무사면전 자격 취득

4) 장학금

5) 장학금

6) 장학금

7) 장학금

8) 장학금

9) 장학금

10) 장학금

11) 장학금

12) 장학금

13) 장학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s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유년, 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청년부	토 일 오후 5:00	4층
	토 일 오후 5:00	나사렛성전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 오후8:00	2층 대예배실
	각 셀 예배	셀 기정방

서울서승구장지동 850-3호

전화 02)430-9107, 02)3402-27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희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포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www.scogop.net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정성서수원)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감독 이정재 목사

성서수원(이정)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이원이집 02)646-3107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 집회인도 및 나쿠루교회 헌당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하리라”(단12:4)는 말씀을 피부로 느끼며, 지금의 우리는 말세의 한 부분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 신자나 불신자나 현재가 말세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그런 언어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막가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회회락락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자신을 지켜가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만한 외적 환경을 지녔던 과거가 있었을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아프리카는 여러 면에서 목말라하는 대륙의 중심에 서있는 곳이다. 방학이란 이름은 학교를 경영하거나 강의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의 날들이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요리하여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보낼까를 몇 개 월 전부터 고민하게 된다. 이번에도 지난 해 여름이나 금년도 1월에서처럼 아프리카의 부름에 응하기로 하였다.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레소토라는 생소한 나라를 들르는 일정을 갖게 되었다. 케냐하면 떠 올리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나 육상에서 늘 앞서가는 모습들이 연상된다.

검은 대륙에서 케냐는 아프리카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이며 관문이기도 하다. 웬만한 나라는 케냐의 나이로비를 거쳐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지구촌오지)교회전 축행전은 복음을 목말라하는 지역에 최선의 길을 제시하는 효과적 방법이라 결론짓고 진행하는 선교의 일환이다. 처음에는 한 분기에 한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교회를 헌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물론 건축의 시작은 4·5개월 전부터 시작하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니 한 달에 한 교회 꼴로 가능해져 있는 것이다.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서너 시간 이동한 곳 나쿠루에 교회를 지어 헌당할 수 있는 은혜와 그곳에서 지도자들과 만나 컨퍼런스

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시 납작 끝으로 이동하여 집회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남아공은 지금 겨울이어서 영하의 기온까지 내려간다. 일행이 머물던 부타치차버는 고산지대여서 더욱 추웠기에 지붕이 없는 성전에선 집회인도가 불가능하다. 대형 천막을 여러 개 이어서 치고 집회를 하다 보니 처음 개척하던 시절이 가물거린다. 그들에겐 빵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더욱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주변의 열악함에도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국에선 한 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에도 견디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과 함께 하다보면 은혜를 끼친다기 보다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싶다. 듣기에 생소한 <레소토>라는 나라는 남아공의 부타치차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국경검문소가 있다.

그곳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적어서 인지 특별한 나라의 손님들에 대해선 노닥거리는 시간을 지나칠 정도로 활해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남한과 북한을 구별 못하는 근무자들을 보면 함성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니 그럭저럭 위트가 되는 편이다. 산세가 아름다워 반할 만도 한데 아직은 외부에 노출되기를 부끄러워하는 땅이다.

한국인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개척의 기

대를 꽃고 올 수 있는 특별한 발걸음으로 사용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간을 라면에 목숨을 매달고 다니는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할 일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돌아 올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분명 할 일이 더욱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낭비할 시간이 없고 에너지를 헛되이 쏟아서는 안 되는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힘, 지식 등을 주님께서 급히 원하시는 지역에 부지런히 쏟아 부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회에서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어를 외치듯, 현재 한국의 넘치는 축복된 생활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힘이 겹도록 사역에 밀려들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땀 흘려야 할 임무를 부여 받은 우리들이다.

‘불이 타므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 한다’는 에밀 부르너의 말이 더욱 머리를 맴도는 건 어떤 일인지...



학장 정기환 목사(K.D.Ed.,Th.D.)
(사)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부천 전원중앙교회 담임



케냐 나쿠루 교회 헌당 후 기념

세주부협 인천서 가을맞이 대 성회 열어

세계주요광부부흥사협의회(이하-세주부협)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서구 가좌2동에 위치한 새창조 기도원(원장 김주향 목사)에서 “가을맞이 대 성회”를 개최했다. 세주부협은 지난 5월에도 동

사, 신임회원 김태권 목사가 말씀을 증거 했으며 안정일, 신순옥 전도사, 굿가이즈 섹스폰 예수 선교단 등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세주부협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성회를 요청하면 전국 어디든 집회를 인도해준다. 특히 부흥회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원을 위해 본부에서 기본 경비와 강사를 지원하며 작은 교회와 기도원을 살리는데 주력하

고 있는 초교과 부흥사 단체이다. 세주부협 소속강사들은 세주부협(http://wlgna.onmam.com)이 주관하는 성회를 통하여 교회와 기도원이 성장하는 사제가 되고 있어 보람을 느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집회를 원하는 교회나 기도원이나 부흥사로서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편성국 부장 박영민 기자



굿가이즈 섹스폰예수선교단

강사 이재원 목사(세주부협 대표회장)

새중앙교회 조영숙 권사 성지순례 사진전 가져

예배로 시작한 성지순례 사진전 많은 감동 속에 큰 성과 이뤄

사진가 조영숙 권사(새중앙교회)는 2011년 봄에 다녀온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성지순례여행 중 깊은 감동을 주었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지를 중심으로 사진전시회를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가졌다. 사진전을 준비하는 동안 여행지에서 담은 사진들을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말씀과 더불어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고, 오히려 여행 때 받은 감동보다 더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전시된 작품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지인 그리스 성지순례 네아폴리- 루디아 기념교회-빌립보 바울의 감옥- 마테오레-고린도- 겐그레아- 아레오바고스를 중심으로 약 30여 점을 전시했다. 새중앙교회 사진선교회 회원들 외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월 22일 11시 아트 로템 갤러리에서 사진선교회 회장(윤한중 집사)의 인도로 전시회 오픈예배를 드렸다. 새중앙교회 이향규 목사는 사진은 순간의 포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대하여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운영 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작품인 자연을 사랑하는 조영숙 권사는 오랜 시간 사진을 하면서 렌즈를 통하여 작은 꽃에서부터 드넓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었으며, 자연에서 느끼는 오묘함에 감동을

받는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림으로, 음악으로, 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할 수 있지만, 사진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의미가 있어 더욱 매력이 있다.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순례자들의 전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지순례 사진전이 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담임 정연수 목사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종교와 위업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세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은 땅에서 그 앞에서 떨지이다.”

대광교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10-9
대표전화: 031)384-7408 부부사실: 384-9744, 385-8933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2011교회 표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자!” (행2:47)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철

2011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공회	금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모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임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홍남서모임가대회	월요일 오전 11:00
2	바울교실	주일 오전 10:00
3	학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평일시간
5	순도미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순도미	주중 매일
8	제력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방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총서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토, 목)

주 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토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선교사: 김경자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031)424-7612
H.P: 010-4436-7060

경남 함양군 성시화운동 전도대회 설명회 가져

인구 5만이 채 안 되는 경남 함양군 기독교계가 복음전도를 위해 힘을 모은다. 함양군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전영학 목사)는 31일 오전 11시 함양중앙교회당에서 함양군 성시화운동 전도대회 설명회를 갖고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 까지 성시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인도한 김중식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도훈련원장)은 “교인들에게 전도훈련을 시켜, 지역민들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학 목사는 “함양군은 교회가 60여 교회가 있고, 기독교 인구는 5~6퍼센트”라고 소개하고 “함양군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통해 교회만 전도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남일우 목사, 사무총장 성재호 장로, 함양군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영학 목사, 대표본부장 김갑식 목사, 사무총장 김재철 목사, 감사 이창희 목사, 사무총장 김갑식 목사를 비롯한 13명이 참석했다.



21C목성연 제10회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

21C목회성장연구소(이하-목성연/소장 문화평 목사)는 전국목회자(목사, 사모, 전도사)를 재충전하는 목적으로 지난 달 29일(월)~9월 1일(목)까지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소재, 수원연수 유스호텔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8월29일(월)오후 1시40분 찬양소리와 함께 “제10회 초교파 목회자세미나”가 3박4일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21C목회성장연구소 소장 문화평 목사를 비롯해서 류자형 목사(강서제일교회), 장영일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도한호 총장(침례신학대학교),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고 훈 목사(안산제일교회), 임영훈 감독(한사랑교회), 정훈택 부총장(총신대학교), 순현보 목사(세계로교회), 김진두 목사(영등포중앙교회), 류종상 목사(하늘비전교회),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김두식 목사(말씀교회), 이화영 목사(금호교회), 최영걸 목사(홍익교회), 박요한 목사(성암교회), 채의승 장로(대의료회장), 구한나 목사(재정담당 부소장)등이다.

21C목성연은 2002년 8월 19일 제1회



문화평 목사

전국목회자(목사, 사모, 전도사) 세미나(삼천리교육원)를 시작으로 매년 8월 마지막 켜 월요일~ 목요일까지 3박4일간 어김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소장 문화평 목사(사진)는 탈진한 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이일을 위하여 2002년 5월에 설립하게 되었다며 설립취지를 말한다.

초교파 전국목회자(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1) 목회자들에게 재충전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2) 교파를 초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민족과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3) 각자 섬기는 교회와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이라고 말한다.

금년 세미나는 17인의 강사진으로 18강좌가 진행되어졌는데 목회자, 사모, 전도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시간의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생들은 강의를 듣는 열정이 뜨거웠고, 끈끈한 “부부 애(愛)”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아름다웠다.

21C목회성장연구소(소장 문화평 목사)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고자 <사단법인 한국개척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도국 김영환 차장 (magic114@paran.com)



예장중앙총회 백기환 총회장 압도적 승리

부총회장은 행정 최영순, 대외 고금용, 재정 유금순, 재무 이영희 목사 등이 선출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중앙)가 9월 장로교 총회를 필두로 진행되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백기환 목사가 총회장에 재선임 됐다.

‘임마누엘로 한마음 한뜻으로 총회!’를 주제로 지난 1~2일 용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제96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백기환 목사를 총회장에 재선임 했다.

백 총회장은 “앞으로 교단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더욱 힘을 것이며, 교회마다 건전하게 정착해가는 모습에 집중하고, 총회와 신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한 일에도 적극 협력 하겠다”며 “교단의 질적, 양적성장을 위한 장, 단기 정책을 수립해 90개 노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00여 명의 총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는 이강덕 목사(서기)의 사회로 진행되어 고금용 목사, 이진호 목사, 유금순 목사, 최영순 목사가 △정기총회 및 임마누엘로 한 마음 한뜻 모아 총회를 위해 △본 교단 직영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을 위해 △총회 산하 지교회와 인준신학 발전을 위해 △한민족의 구원과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백 총회장은 “일이란 인간만이 받은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전제하고 “선생 된 우리가 경고 받아야 하는 것은 천보다 귀한 하나님의 양무리의 영혼을 위탁받았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함이며, 삶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선생이 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노회의

신설과 분리, 통폐합을 처리하고,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확장 이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예장중앙총회 전용 유토피아 추모관 1000홀 오픈 건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제96회기 임원진은 총회장 백기환, 행정부총회장 최영순, 대외부총회장 고금용, 재정부총회장 유금순, 재무부총회장 이영희 목사, 서기 이강덕, 부 권징숙, 회의록서기 윤광선, 부 유정재, 회계 이복순, 부 김애자, 총무 이병일, 부 김동진 목사 등이다.



강신숙 목사

송과구 잠실동 담오리교회(김요한 목사)에서 있었다. 신학원장 강신숙 목사는 1부 신학원 분교 개원예배에서 12.3부로 진행되었다. 1부 개원예배는 류신철 목사(부총재) 인도로 마6:18.18: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학원장 강신숙 목사(사론 지구촌예수교회담임)는 “삼나무의협력정신, 풀리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김요한 목사(담오리교회)축도가 있었다.

이어 오후 2시 김요한 목사(담오리교

강신숙문화예술신학원 서울분교 개원

회)의 진행으로 2부 예배가 시작되어 임무대 목사(강사단장)가 기도를, 축성시 및 축사를 김사라 목사가, 신현옥 목사(대표총재 시몬은혜기도원 원장)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저녁 7시30분 신학원장 강신숙

목사 인도로 3부 예배가 진행되어 김요한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마쳤다. 한편 강신숙목사문화예술신학원 분교 개원예배는 영육간강지유신교회 기독교예인 부흥사협의회로 신학원 장학생 돕기 후원모금 콘서트도 함께 열렸다.



慶 祝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담임 정일랑 목사

웨신총회 부서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교우일동-

교회주소 : 406-8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9층)
☎ 032)812-7773 H.P 010-4274-3330

慶 祝

대한예수교장로회 은 천 교 회



담임 김준택 목사

웨신총회
부총회장에 당선된 것을
감축드립니다. -성도일동-

교회주소 : 422-8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 032)342-0259, 341-6182
H.P 010-4166-2307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교회 표어 : 복의 근원이 될지이다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1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충성 - 감절의 선교

부목사 : 송승길
장 로 : 박광순, 김혜자
강도사 : 김성일
전도사 : 오정순 인사관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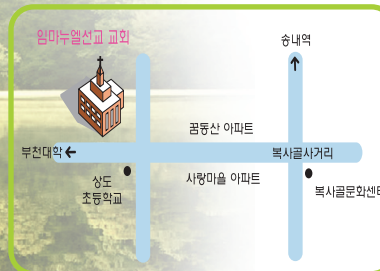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학악리 116-5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프월드선교협회의 대표회장
저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성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아침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만이라도 감사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4.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랑

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39 찬송가 454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온 대중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면서 임으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형식적 행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12 찬송가 340장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와 같이 누룩의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인 행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행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은 형식적 행함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6. 베드로의 고백을 잊지 말자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20절 찬송가 96장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저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잊지 말고 왕 되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7. 하늘 위의 영화를 누리는 가정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28절 찬송가 209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역설적인 말씀에 이어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비록 온 전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이 땅위에서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허무성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위에서의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은 이 땅위의 영화로움 보다 하늘 위의 영화로움을 꿈꾸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13절 찬송가 380장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을터이니 여기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이런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체험만을 @아나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말씀따라 가고 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중심의 신앙생활만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가정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21절 찬송가 334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질병을 고치지 못했는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며 겨자 한 알만한 씨앗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세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을때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지혜롭게 행동하라

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27절 찬송가 543장
본문에서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어야 했던 성전세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나타나면 맞

서지 말고 충돌 없이 피하되 올바르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져주기 보다는 현명하게 잘 대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어린 아이와 같이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14절 찬송가 565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떠한 자가 크냐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보다 천국에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며 또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온전한 가정예배를 통해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20절 찬송가 620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만이라도 함침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같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원이 적다하여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적은 인원의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예배를 통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용서할 수 있는 가정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35절 찬송가 468장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뿐인 용서를 넘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답게 나를 합롭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순결한 가정

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12절 찬송가 436장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며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간음함이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부부가 서로 더 믿어주며 서로가 순결을 지키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순결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한국 청년이야기

베트남 주민들이 아주 무서운 것 중에 코브라란 뱀인데 코브라에게 한번 물리면 즉사한다. 그리고 몇 미터만 가까이 가도 그 독 기운에 실명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청년과 베트남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때 코브라가 나타나었다. 사람들은 코브라를 보자 다 도망을 갔다. 사람들이 한국 청년이 보이질 않자 코브라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한국 청년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코브라가 출현한 장소에 가 보았다. 하지만 베트남 주민들이 감

짜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그 무서운 독사를 이미 다 먹어치웠고 머리 부분만 남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저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지 않고 한국 사람을 데려다 놓았더라면 사람이 뱀의 유혹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이 있다. 만일 그 때 한국 사람을 에덴 두었다면 뱀은 멸종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다. 왜 한국 사람은 뱀에게 유혹 당하기 전에 이미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목사면직 공고

피 고 : ① 장창수(경중노회 광성교회). ② 이동우(서울노회 삼암제일교회). ③ 이기식(경중노회 한성교회)

1. 목사면직 사유

1). 이단을 주장할 때(권제42조). 2). 목사가 교회, 노회, 총회를 불법으로 분리 할 때(권제42조) 3).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할 때. 4). 기타사유.....(권제 1장 제3조)는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될 때,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한 것,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이 범죄"이다 (권제 44조)에는 "악행을 인하여 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했으니, 목사의 악행도 면직사유가 됨으로 처리권자 재량권이 부여됨. 권제,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은 정치 제26장 헌법규칙, 제11조 공동생활에서의 교인과의 관계(p. 203. 208). 제1항, 2항, 제8장 윤리위원회 제재의 대상.....①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 하게 훼손한 자. ② 공직에 있는 자 명예를 훼손하고, 건덕 상에 물의가 있는 자. ③ 근거 없는 허위 날조, 개인, 교단에 명예가 훼손될만한 말을 유포하는 일. ④ 개인의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쇄물을 배포하며, 노회, 대중을 선동하는 자. ⑤ 회장의 승인 없이 부당한 비밀회의를 열며, 불온한 결의를 한자들, 위 3인은 각 항을 위반함.

2. 위 피고들의 범법행위

1). 수년간 원로들이 총회장을 여러 임을 섭정하듯 총회장을 조정했으나, 총회장이 원로들 의지대로 안하고, 원칙대로 총회를 운영하던 중, 이기식씨가 총회임원들이 신학교 주일헌금인 공공유용, 총회임원들이 회의록을 불법으로 정정했다는 거짓을 원로들에게 유포함, 그들은 몇 차례 화합 끝에 2011. 6. 2일 제95회기 제9차 총회임원회 총, 총회장, 총무정직, 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 위원들이 9월 총회까지 집무하고, 총회원로 중에서 총회장을 선출, 원로들 중심으로 총회를 이끌어 간다는 음모가 사전에 들어남. 임원회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헌법 개정 수의까지 한 일이다. 총회 전복기도가 발각되니, 처음에는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잠시 의논한 것이라 하더니, 2011. 8. 16일자 이기식씨가 배포한 불법 유인물에서 2011. 5. 29일 주일 밤 10시에 원로들이 모여 총회의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이동우, 이일영 목사 2인은 총회임원과 대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조직을 시인했고, 2011. 6. 2일자로, 총회임원을 자신들이 해체한다는 사실을 아는 증인도 있다.

2). 불법 헌법 및 규칙개정을 한 사실.

(1). 헌법 및 총회규칙 개정절차 규정..... ① 총회규칙 제8장 제35조 분 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부의 제의와 출석총대 ⅔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② 제25장 헌법개정. 제4조 노회의 개정안 승부, 헌법 개정을 원하는 노회는 소속 노회원 ⅔이상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 현의를 총회에 제출.(헌법적 규칙도 동일함). 경전노회는 제4회기 총회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헌법(정치, 권징, 예배모범, 및 총회 일반규칙) 개정 및 수정 현의를 했고, 총대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채택됨.

※ 교회정치문답조례 : 447문. 448문. 448 "속 문" 본 교단 헌법, 제3편 정치(p. 145).

제25장 헌법개정(pp. 202-203)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고 2011. 9.13일 제95회기 총회에서 개정헌법 및 규칙이 만장일치로 찬동, 결의 채택으로 총회장의 선포가 있음으로, 통과즉시 시행하게 되었음.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합동보수측, 개혁신측, 대다수의 장로교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함).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한 가지 의제를 동일회기 내에는 두 번 논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총회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결에 복종해야한다. 총회에서도 전회(前會)시의 결정은, 후회(後會)가 재론하여 반복할 수 없느니라(정문 제421 문)고 했으니, 결국 총회의 결정은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고로 총회는 최고 회가 된다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원로라는 분들이 개정헌법 보고, 통과한 당일예, 제개정을 할 수도 없지만, 개정 현의도 없고, 채택도 없는 상황인데 불법결의, 총회임원들에게 개정위원을 선정케 하여 전회(前會)의 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구실로, 불법 수의(垂議)까지 전국 노회에 하였으나 부결이 되고 말았다. 이 불법한 처사를 처리해달라는 진정서 2통이, 2개 노회에서 2011. 6. 23일자로 총회 윤리위원회에 우송되었음. 진정서가 행정처결의 근거를 삼을 수는 있으나, 다만 행정권을 통해서라도 재판할 필요를 인정하고, 윤리위원회는 행정처결권은 있으나, 권징권이 없음으로 피고들의 소속노회로 원상재판 위탁판결을 의뢰하여, 2011. 7. 20일까지 총회에 판결문을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가 없음으로, 윤리위원회는 총회에 보고, 법적 절차에 의해 총회는 기소위원(원고)을 선정, 피고 3인에게 기소장을 발송. 2011. 8. 18일 정오(12시)에 재판이 있음을 통보했으나, 불응하므로, 2011. 8. 29일 오전 11시에 있을 재판에, 재도 소환장을 발송함,

유의사항.....① 인장을 지참 출두할 것, ② 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사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본 권징조례(제34조, 39조, 44조)에 의하여 사벌 하며, 피고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굴석(闕席)한대로 사벌케 되니 유의하실 일,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총회장, 임원회, 윤리위원회 앞으로, 사과문을 제출하면 불문에 불나다 했으며, 몇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도 사과를 권했으나, 끝까지 자신들의 악행을 총회장에게 전가, 총회장이 자신들에게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격이었다.

(권 제4장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함에 속하고,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치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에 준해 기소함. 상회재판 중에는 재판회가 불법한 재판을 하면 재판에 출두하여 소원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유인물 배포는 불법이다. ① 이동우씨의 유인물, 2011. 6. 10일자. ② 2011. 7. 27일자(김용진, 이일영, 장창수, 이동우, 이기식)명의로, ③ 2011. 8. 16일자(교단수호모임 : 장창수, 김용진, 이일영, 이동우, 이기식)명의로, 3차에 불법유인물 배포를 통해, 중상모략, 온갖 거짓증거로 전국 총대에게 혼란을 주고, 유인물 2. 3호에서는 "불법 자들과 함께 하든지, 자칭 정통개혁주의 정체성을 지켜 명실상부한 교단으로 주님이 부른 소명을 가지고 시대의 소임을 다하든지, 선택은 회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 하며, 이들은 정식으로 총회 분리를 선포하였다.

4). 유인물 배포 죄 "민일 재판회의" 재판진행에 불만이 있으면.....① (권 제23조)에 의거 그 재판회에 소환할 수 있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또는 쓸데없이 자기를, 제 3자에게 변명하므로, 재판회가 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함은 불법이다. ② 재판진행 중에 있는 원, 피고가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하여 선전하면, 처리회를 모독하는 죄요, 원, 피고는 재판회의 심문에 응해 성실히 답변하고, 자기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함. (제9장 권 제76조) 상소심 재판판결 "언도 전에" 유인물 배포는 불법이요 죄가 된다. 간접적인 배포도 본 죄는 성립된다. ③ 배포대상은 총회원이나, 일반 민중이, 다 포함된다. 피고 3인은 ㉠ 총회를 분리하기로 선포한 죄, ㉡ 위에 서 지정한 목사면직 기타사유의 악행(권 제44조)은 면직을 당하고 했으니, 악행이 수(數)건이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엄히 책벌을(마 18: 15-18) 명하셨음으로, 재도 소환에도 불응함으로(권징조례, 제5장)재판에 관한 특별규례(제34조, 39조, 44조)에 의거하여 굴석재판을 한 결과, 교회정치문답조례(187문 8항, 600 문)에 준하여 "목사 면직에 처하기로 재판회원 7인 전원 이" 만장일치로 결의, 예배모범(제16장 사벌 1. 5. 6항)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29일
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재판회원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전국노회

제[96회] 성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77-823)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85-3
H.P 010-7130-3391

노회장 정성택 목사
현리자유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2836 W. 8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65-2915
H.P 213-200-2592

노회장 정승룡 목사
말씀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노회장 장기남 목사
연남교회

총회 부서기
장일항 목사

(138-819)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H.P 010-5468-6574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총회 회계 허성인 목사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122-878)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H.P 010-4270-3462

노회장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동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수내B/D 5층
H.P 010-3136-0697

노회장 장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총회 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총회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22-8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H.P 010-4166-2307

노회장 김춘택 목사
은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총회 회의록서기 박영남 목사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200-11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7가 1번지
H.P 011-364-4280

노회장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380-950)
충북 충주시 교현1동 484-15
H.P 010-7660-9091

노회장 이경찬 목사
서광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향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31-83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50-3
H.P 010-3927-1913

노회장 김학기 목사
새생명교회

총회 감사 이 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3동 149-1
H.P 019-633-1710

노회장 김성남 목사
목포이웃교회

총회 총무 신연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305-3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80-11
H.P 010-5674-7751

노회장 심순범 목사
대전예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희)7층
H.P 010-4436-7060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총회 부회계 유은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총회 부회의록서기 조철준 목사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573-873)
전북 군산시 문화동 549-21
H.P 010-3944-9491

노회장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부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376-873)
충북 보은군 신외면 장갑2리
H.P 010-8805-4461

노회장 박용학 목사
장갑교회

축하해주세요

 **대한노회 부노회장 오상열, 임복선의 차남 성욱 군
손상기, 채은혜의 장녀 지연 양**

주님의 은총속에 새롭게 탄생하는 한쌍의 부부를 축하해주세요

2011년 9월 24일(음8월27일) 토요일 오전11시
장소 : 수원 엘라제웨딩홀 1층 엘라사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7번지 전화 031-221-3434

대한노회 부노회장
오상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

  **노회장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50-762)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42-17
H.P 010-2740-1571

노회장 이종우 목사
바울선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



노회장
김종국 목사
은성교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
수원송석교회



서기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노회장 김종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감축 드립니다.

(443-8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34-11
H.P 011-9991-6288



세계 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
부활교회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총재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부총회장 당선



부총재
장창운 목사
웨신총회
서기 선출



실무회장
정성택 목사
웨신총회
한남노회 노회장

위의 세 분을 제주부협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 외
회원일동 감축 드립니다.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http://wlgra.onmam.com)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011-792-0191,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010-2080-0651)

한결같은 군 선교의 결실

옥천 화랑교회의 특별한 예비 아버지 학교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충북 옥천의 화랑교회에서는 부대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아버지 학교'가 열렸다. '예비 아버지 학교'는 주로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이다.

옥천과 보은, 영동을 수호하고 있는 제2201부대 화랑군인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예비 아버지 학교가 운영되었다. 여기에는 20년 가까이 화랑교회를 이끌어온 군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김용호 목사의 노고가 깃들여 있다. 김용호 목사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함께 지

금까지 아홉 번의 예비 아버지 학교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올해에도 예비 아버지 학교를 열어 열 번째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하지만 이번 예비 아버지 학교는 김용호 목사에게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군 선교를 통해 김용호 목사가 쌓은 경험과 숙련을 바탕으로 하여 두란노와 관계없이 전군에서 최초로 화랑군인교회 주관으로 '육군 제 2201부대 화랑장병 예비 아버지 학교'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예비 아버지 학교의 마지막 날 모든 행사가 끝나고 김용호 목사를 만나 보았다.

● 조그만 군부대 교회에서 이처럼 큰 행사를 치러 내다니 놀랍습니다. 두란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굳이 화랑교회 자체적으로 예비 아버지 학교를 연 이유가 있으니까?

◎ 김용호 목사 "부대마다 전통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 아버지 학교를 해오면서 규격화 된 프로그램에 좀 더 우리 부대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를 붙여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비 아버지 학교를 통해 우리 병사들에게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대만을 위한 예비 아버지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용호 목사의 이러한 생각과 의지로 이번 예비 아버지 학교는 화

랑부대 장병만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 거듭났다. 김용호 목사는 병사들에게 더 좋은 강의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일일이 강사를 섭외하려 다녔고, 화랑부대를 전역한 선배들을 스테프로 기용하여 군 생활이 끝난 후에도 끈끈하게 이어지는 전우애의 모범을 병사들에게 보여 주는 수료증을 병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김용호 목사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다.

● 오늘 지휘관인 부대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는데요, 인사 말씀도중 진솔한 눈물을 보이시던 부대장님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도 결국 아버지처럼 자식들에



게 매를 들었다며, 자식들을 좀 더 참아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던 자신을 후회한다는 부대장님의 고백을 들으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예비 아버지 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장병 43명 전원에게 부대장님께서 직접 수료증을 전달해주셨는데요, 수료증에도 부대장님



관등성명이 적혀 있더군요. 이런 수료식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김용호 목사 "병사들에게 상관의 칭찬과 격려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의 이름이 적힌 수료증보다도 부대장의 이름이 적힌 수료증이 병사들에게는 일생동안 잊혀 지지 않는 영원한 추억이 되고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화랑교회에서 일은 다 하고 정작 수료증에서는 화랑교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병사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육군 장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군인 교회에서 이러한 규모 있는 행사를 치러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경비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가까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군 선교에 임해 온 김용호 목사를 믿고 지지하는 손길들이 있었 다. 항상 후원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군 선교 목사의 삶에 희의를 느낀 적은 없을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도 거의 없는 군 교회에서 무슨 돈으로 이런 행사를 해낼까 궁금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혹시 목사님은 일반 교회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드셨나요?

◎ 김용호 목사 "사실 처음에 화랑교회에 올 때는 두 달 정도만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해 11월 말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다보니 이만큼이나 왔네요. 군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서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군인과 민간인은 물과 기름 같거든요.

서로 섞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찰을 빚는 사역현장에서 나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을 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고 지내던 나날들이 솔하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아쉬움과 허전함을 매번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에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젊은 목숨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도 그 때문에 이 부대에 화랑교회를 세운 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병사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닌, 화랑부대만의 예비 아버지 학교를 처음으로 탄생시키고 성공리에 마친 김용호 목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육군 제2201부대 화랑장병 예비 아버지 학교와 군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김용호 목사의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다.

이러한 열정 때문이었을까? 군 선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지난 사흘간 화랑교회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가 김 목사의 바램처럼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화랑부대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부대를 거쳐 가는 많은 장병들이 전 역 후에도 화랑교회를 통하여 좋은 선후배 관계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크리스천다움 스피치 ①

‘신앙생활과 언어생활’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교회생활을 하고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많이 하게 되었고 솔직히 어떤 땐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친교도 하고, 전도도 하려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심방을 받게 될 때 초신자인 나는 생각 없이 말하는 심방요원들의 연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잠깐이요,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들 중 거개가 세속적인 관심사로 때로는 경망스런 내용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이었어요. '누구누구는 이러 이러했고 누구누구는 저러저러 했다'는 등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고 하더니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사내아이가 귀가하자 일어났죠. 마침 심방요원들이 일어서 나가는데, 우리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한 사람이 아이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재 머리통 좀 봐 너 가분수구나!' 그러자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 것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 소동을 피우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나 울리고 음식이나 축내고 뒹들 하는 거야! 당신 교회 그만 나가야겠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좋은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걸음마를 하는 초신자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생활로 오히려 재를 뿌리게 되다니..."

종종 들려오는 소리들이다. 어디 이것 뿐 이겠는가?

심지어 사역자의 연사로 인하여 심한 상처를 받은 신도가 있는가 하면, 수군수군 말을 만들어 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고, 파당을 만들고 공방전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떠돌아 전락회의까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신앙생활과 언어생활, 스스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 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노. 내 형제들이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노.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야3:6-12)

전아목사(다움 스피치 센터 대표)
크리스천다움 스피치상담:010-8200-9172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나홀로소송시민연대(나시연)는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으로 법무부로부터 고유번호 215-80-05220을 부여받아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단체임. 본부와 전국에 시·도 지부를 설립하고 있으며 2011.7.1일자로 대전·충남지부를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음.

나홀로소송시민연대는,

- 1,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업무,
- 2,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민형사소송.행정가사 등 사건 일체를 상담지원협조,
- 3, 회원 조직을 각 시군별로 확대하여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들에게 법률적인 혜택을 지원,

본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8-4 동궁빌딩 301호,302호
본부회장 : 김영권

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충동 508-1 대자빌딩 6층
대전·충남지부장 : 서영웅

연락처

중앙본부 : 전화 02-521-8819, 02-595-0027
FAX 02-521-7362

대전충남 : 전화 042-253-7336,7337
지부FAX 042-253-7338

지저스 119 범국민 합심기도로 독도수호 전력

독도수호를 위한 ‘제4차 범국민 지저스 119 기도대성회’ 개최

나라살리기운동본부 지저스 119 기도협의회(대표회장 주녹자 목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제4차 범국민 독도방문 기도대성회를 개최했다. 「여호와 빛시! 겹웃을 벗어 던지고 독도에 기도」에 성벽을 쌓자!」란 주제아래, 전국에서 모인 110명의 회원들이 울릉도를 비롯한 죽도, 독도 등에서 독도수호를 위한 범국민 기도대성회를 가졌다.

본협은 독도지킴이 취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서 고대사와 현대사를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독도를 한국 땅으로 지정해 주셨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삼키려고 50년이 넘게 왜곡된 소송과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공개적으로 독도를 포기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성벽을 더욱더 높이 쌓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성회는 지역을 옮겨가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북 울릉군 죽도에서 열린 1차 대성회에서는 윤요셉 목사(동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봉룡 목사(동협의회 상임회장)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박찬권 목사(남산타워구국기도회장)가 축도했다. 이날 설교에서 상임회장 이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민족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본의 모든 모략과 술수로부터 독도를 지켜주신다”며, “이번 대성회 기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 땅 독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동 협의회는 다음날 오후 울릉도를 출항하여 독도에서 열린 2차 대성회는 1부 독도예배와 2부 국민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성회에 하이이라이트인 1부 독도에 배는 김선우 목사(사랑교회 담임)의 찬양인도를 시작으로 고종욱 장로(선진화운동본부 회장)가 대표기도를 했고, 주녹자 목사가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본문을 말씀으로 「열방에 선포하라,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 목사는 “일본은 지난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은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야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동시에 이웃을 거짓증거하는 죄다”고 말했다.

또 주 목사는 “하지만 우리도 5천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선교사를 학살하는 등 우리의 죄상도 있다”며 “우리 모두는 주안에서 한일 간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세계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석주 장로(공복회지회장)를 비롯한 권태규 학생(초등학교 대표), 최상국 목사(동협의회 상임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5명이 준비한 독도기도문을 차례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윤요셉 사무총장은 동협의회 전 회원들의 뜻을 담은 독도결의문 낭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대한의 혈맥으로 명백한 한국 땅임을 선포하고, 독도를 수호하고 관리 보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 이 독도를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자료보급 홍보에 앞장 설 것이며, 이번 제4차 독도 대성회를 통해 독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적인 일



(좌)대표회장 주녹자 목사, (우)사무총장 윤요셉 목사

을 하고 있다”면서, “지저스 119 독도지킴이 기도용사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의 국방군과 민족의 파수꾼으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다짐했다.

2부 순서인 국민의례도 윤요셉 목사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되고, 이재오 장관(특임장관)의 격려사 대독에서 “이 독도기도회가 향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평화관계 형성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윤요셉 목사는 대성회 기간 동안 독도수호와 관련해 독도 못지않게 울릉도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섬 죽도(竹島)에 대한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동협의회는 지난 1998년 5월 25일 주녹자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하여 발대식을 갖고, 대한민국과 국가위기를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매월 25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국회의사당과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일진각 평화의 광장 등, 전국을 순회하며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작년의 경우에는 “구제역 재앙”과 “연평도 폭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며, 연평도 및 전국을 순회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범국민 독도방문 기도대성회는 지난 2008년 1차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독도에서 기념촬영

영등포역 박희돈목사 밥사랑에

“노숙인들 배불러요 감사해요”

박희돈 목사는 영등포역 광장을 노숙자들과의 만남의 장이요 밥과 거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장으로 삼는다.

영등포 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이 저녁 8시가 넘어서면서 밝았던 조명이 하나 둘 꺼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저녁 9시가 되면서 노숙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식탁을 향해 줄을 서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데서 이렇게 많이들 왔을까?

이날은 해피나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경기도 이천 늘푸른교회 장영수 목사와 성도들이 동참하여 봉사에 나섰다. 노숙자 형제자매들에게 식탁을 마련하고 식사를 나누어주기 전, 밥사랑열린공동체 박희돈 목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여가 모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식사기도를 한 후 식사와 거피, 음료수를 제공했다. 박희돈 목사는 밥과 국, 음료수를 넉넉히 준비해 왔으니 배불리 마음껏 먹을 것을 권했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약40분에 거쳐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이구동성으로 박희돈 목사와 악수를 하며 배불러요 감사해요라며 인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목욕탕엔 가지 못했다 보니 땀으로 찌뻘어진 땀새는 역겹기만 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땀새에 익숙해서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 이를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悶悶하며 저러온다. 그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기도를 해본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 사이로 열심히 움직이며 노숙자

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들처럼 여기면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소홀히 하는 일 없이 챙겨주고 관심을 쏟고 있는 박희돈 목사가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로 보인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을 가진 목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

박희돈 목사 그는 왜 남이 택하지 않은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 동기는 이렇다. 박 목사는 한때 모 신학대학원 교수였으며,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늦은 시간 기차를 차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저 멀리 속살을 드러내 놓은채 쓰레기통에서 컵라면 속에 남은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가 밥을 사서 먹이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자 여인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살죠, 남자 노숙자들 사이에 사는 게 힘들고 때론 성폭행으로 인해 팔레 나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물을 찾아 요기를 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를 계기로 노숙자에게 급식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행동에 견디다 못해 부인은 박 목사 결을 따랐다. 그리고 박 목사는 노숙자 700여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내와의 이혼 당시 충격으로 청력을 잃었으며, 그 후 뒤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소리도 들리지 않고, 걸을 때는 몸의 중심이 잡히질 않아 불편하기만 했다. 절망한 그는 자살할 것을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얼굴이 나 더 보자며 찾아간 시골집,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는 아들 목사에 게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돈 27만원을 손에 쥐어줬다.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살아라.”박 목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목을 놓고 울었다.

다시 그는 영등포 역으로 돌아와 노숙자를 돌보는 가운데, 미군에서 쌀을 보내주고 봉사자도 늘었다고 한다. 새 쌀을 찾겠다는 노숙자도 생겼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 박 목사를 돕고 있다. 한때 노숙자였던 조상현(37)씨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를 돕겠다며 영등포 역을 찾아왔지만 금세 포기했다. 털보 아저씨로 애칭이 된 박 목사를 제외하곤 말이다.

밥사랑열린공동체 박희돈 목사는 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 부르는 그날까지 노숙자들을 가족 삼아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서울역에서 노숙했던 200-300명이 영등포 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현재 700여명의 식사 준비를 1000여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기도를 한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운송수단인 2.5톤 트럭도 2대는 필요하고, 식탁도 300여개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노숙자들을 목욕시킬 수 있는 시설차량이며, 노숙자를 위한 내안학교를 설립해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일원으로 진출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화를 배워서 노숙자들과의 대화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박 목사는 한쪽 귀는 아예 들리지 않으며, 한쪽 귀는 아주 작게나마 들을 수 있지만 그나

마도 의사 선생에 의하면 조만간 아예 청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그러면서 오직 노숙자들만 그들만을 생각한다. 600원이면 노숙자 한 사람의 식사가 해결되고, 1만원이면 16명의 식사가 해결된다면서 사회가 버린 노숙자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밥한 끼를 먹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한다. 오늘도 노숙하는 형제자매들이 질서 있게 식사하는데 참여하고, 뒷정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고향생각 가족생각, 이런 저런 생각에 감겨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25일 저녁 9시부터 약 50분간 자원봉사에 나선 해피나우와 늘푸른교회를 만나본다. >경기도 이천 울면 북두리 312-3 장영수 목사(늘푸른교회)와 성도들, >해피나우 기획조종실장 이영수 집사(서울나들목교회 안수집사)와 자원봉사에 나선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탁을 마련하고 따뜻한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했다.

해피나우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은 노숙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단, 꾸준한 후원지원, 세탁과 목욕을 시설 제공을 위한 해피나우와 밥사랑공동체 박희돈 목사와의 협약식이 오는 9월 28일에 서 30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용과 의료봉사 등을 비롯해 롯데백화점이 휴점하는 날, 1회 정도 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없었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교회 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학원 이사장 ◆세계관주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의회 총재 ◆전원영광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 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 집 학 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계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계교인	댄싱위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醫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醫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醫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醫院
Charles McVety(교회사):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